

光日春秋



오덕성  
우송대 총장

'가정의 달'인 5월이 될 때면 머릿속에 기억나는 일들이 있다. 부모님의 은혜와 희생을 생각하며 어버이에 대한 감사한 마음, 제자의 성공을 보면서 기뻐하는 스승의 마음을 회고해보면 봄날씨처럼 마음이 따뜻해진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방영중인 '꼭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제주 태생의 반항아 애순이와 팔불출 무쇠같은 관직이의 삶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 삶의 모습과 자식을 위한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 등의 모습이 비춰지며 매혹 드라마를 볼 때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눈시울 붉어지며 콧물이 시큰거린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부모님의 모습과 함께했던 일화가 떠오른다.

중학교 시절,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점심 도시락을 잊고 등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내 이름을 외치며 도시락을 들고 뛰어오시는 어머니가 보였다. 이것은 굶을까 싶어 체면 가리지 않던 어머니 모습이 지금도 선연히 남아있는 것은 당시 어머니의 애정을 모르고 부끄러운 마음에 짜증만 냈기 때문이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종종 그때 그 상

따뜻한 5월에 기억되는 일들

향으로 되돌아가는 걸 보면 못한 나의 행동에 대한 자책이자 반성이지 않을까 싶다.

아버지와도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필자의 아버지는 당시의 다른 아버지들처럼 희로애락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분이셨고 고생스러운 삶을 그저 담담하게 살던 분이였다. 중학교 입학시험을 치르던 날이 떠오른다.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동안 아버지는 12월 한겨울 날씨에 교문 앞에서 기도하며 종일 서 계셨다. 시험이 끝나고 나가니 아버지는 '고생했다. 밥 먹으러 가자.'라며 중국집으로 필자를 데리고 가셨고 별말 없이 짜장면을 나누어 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그 당시가 뇌리에 남아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사는 여동생과 통화를 하며 처음 듣게 된 이야기인데 필자가 박사학위 시험에 통과했다는 국제전화를 받으시곤 너무 기쁘신 나머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셨다고 한다. 감정표현을 잘 안 하시던 아버지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니! 또, 그렇게 기뻐하셨다니! 돌아가신 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부모님은 필자를 포함한 네 자녀를 공부시키고 독립할 수 있도록 고생과 희생을 했지만 조용하고 담담하고 꾸준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불평 없이 불만 없이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것을 내어주셨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지도해주셨던 헨켈교수님도 부모님과 같은 분이였다. 재직 중이던 대학을 휴직하고 유학을 떠났기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학위 논문을 마무리해야 했던 사정을 고려하여 필자보다도 훨씬 더 신경을

쓰셨다.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한 필자의 노력을 존중하면서도 '박사논문은 그 분야에 학문을 시작하는 단계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좀 더 하고 싶은 내용은 박사 후에 심층적으로 연구를 펼쳐나가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책임지듯이 헨켈교수님은 한-독 국제 공동연구를 제안해서 연구과제 제안서를 손수 준비하고 본인의 뛰어난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몇 번이고 정부에 설명해 주었다. 막 박사 학위를 취득한 초년병인 필자는 교수님 도움으로 수준 높은 국제연구의 공동기여자가 될 수 있었다. 2년간 열심히 했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신의 일처럼 기뻐하시던 기억이 난다.

무심하게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온통 감사할 일로 가득하고 특별히 내 인생에 불을 밝혀 길을 편히 갈 수 있도록 말 없는 다정으로 나를 응원해주신 분들이 있다. 언제나 묵묵히 곁을 지켜주신 부모님, 새로운 길로 나아가 줄 수 있도록 단내가 되어주신 스승님.

5월의 푸르고 따뜻한 계절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부모님, 스승님을 떠올릴때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생각난다. 울창해진 나무가 숲을 보호하며 자연을 살리다가 나중에 장작이 되어 태워지는 것처럼 자녀, 제자를 위한 희생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셨음을 새삼 느낀다. 올해 가정의 달에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과 스승에 대해 회고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말로 다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자녀와 제자들에게 내리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주고 싶다.

종교칼럼

그 아버지에 그 아들



최현열  
광주 은교회 담임목사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는 속담은 아버지의 성격이나 행동, 기질이 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뜻이다. 즉 부모의 모습을 보면 자식의 모습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훌륭한 부모의 자녀가 똑같이 바르고 우수한 모습을 보일 때 칭찬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반대로 안 좋은 습관이나 문제 행동이 대물림되는 경우에도 비판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속담이다. 이것은 가정 환경, 교육 방식, 태도, 말투 등 부모로부터 받은 무형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이다.

요즘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야구 팀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이정후 선수를 보면 아버지 이종범 코치가 생각난다. 이정후 선수는 어릴 때부터 야구 선수인 아버지를 보며 자랐고 자연스럽게 야구를 하게 되었다.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야구적으로 배운 것은 없다", "아버지께는 인성과 좋은 사람으로서 클 수 있는 것들과 항상 선수가 잘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말이다.

실제로 어린 아들에게 야구의 고급기술을 직접 가르

쳐 주지 않았다고 한다. 아들이 그런 요구를 할 때 마다 이종범 코치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너를 잘 알고 있는 팀의 코치에게 배우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릴 때 그 나이에 걸 맞는 훈련과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철학으로 대했다. 만약 아버지 이종범 코치가 아들의 마땅찮은 모습을 보며 다그쳤다면 지금의 이정후 선수는 없지 않았을까 싶다.

'꼭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있다. 아들 은영이가 사업이 잘못되어 구주소에 가게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 양관식은 거금 칠천 만원이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방팔방 다니지만 구하지 못하고 결국 배를 팔아 마련하게 되고 그 사건으로 동네에서 은영이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받아 주는 곳이 없었다.

하지만 얼음가게에서 그를 받아주었고 은영에게 사장이 이렇게 말한다. "허풍선, 날강도, 여기 아무도 안 써주는 양은영이를 내가 왜 쓰는 줄 알아? 네가 명마의 자식이라 쓰는 거야"라고 말한다. 그리고 명마의 새끼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명마 대접을 받는다는 말을 한다. 아버지 양관식은 성실하기로는 으뜸인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다. 은영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었을 것이다.

구역 성경 사사기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타락하고 힘을 잃어 가는지 잘 나타나 있다. 아예 다른 세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후신 은혜조차도 잊어버린 세대라고 표현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사사들이다. 그 책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동시대에 살았던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책이 바로 룻기라는 책이다.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들어 한 가족이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 그곳에서 두 아들은 외국인 아내를 맞이하여 살게 되었는데 엄청난 불행이 그 가정을 휩쓸고 갔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모두 목숨을 잃게 된 것이다. 시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두 며느리에게 아직 젊으니 친정으로 돌아가라 말했다.

그 말을 들은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 다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 살겠다고 한다. 그녀가 바로 룻인데 그녀가 말하기를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겨레가 내 겨레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이다.

불행이 그 가정을 덮쳤지만 믿음으로 극복하고 며느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다. '그 시어머니에 그 며느리'라고 할까. 이 이야기의 끝은 결국 룻으로부터 나오는 후손이 다윗이 되고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이 줄어든다고 걱정하기보다 부모 된 우리가 더 온전한 신앙을 갖추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들의 믿음'이 되리라 생각한다.

社說

사법의 정치화로 혼란 더 키운 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이나 법조인들의 예상을 빚나간 것이자 상식과도 동떨어진 것이라 충격적이다. 무엇보다도 졸속심리에 따른 정치판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법원은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집중심리했다고 하지만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일로부터는 36일만 이자 3월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에 결론을 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막대한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힘들어 졸속심리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어떤 사정 군수의 대법원 선

거법 판결도 이번처럼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빠르게 나온 적이 없다.

더구나 반대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 주장처럼 논란이 있을 경우 피고인의 주장을 반영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과도 위배된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른데도 대법원이 피고인의 입장보다는 검사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행위 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을 두고도 요즘 추세와 달리 정치인들의 발언을 극도로 제한한 것이라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및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법부의 정치 판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잦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결국 이런 우려를 현실화 했다. 사법의 정치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대선 전 판결로 혼란을 수습하겠다는 취지와는 정반대로 혼란을 키우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도 결국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상식에 있어야 한다.

5·18 이후 개정된 인권침해 법률 그대로라니

5·18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국가폭력·인권침해 법률이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병주 서강국제한국학선도센터 선임연구원은 그제 5·18기념재단이 개최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조 연구원은 '5·18항쟁이 제5공화국의 사회통제법에 미친 영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1980-1981년 제·개정된 국가보안법, 계엄법, 군법회의법 등을 분석했는데 대다수 법률이 신군부의 의도대로 제정되거나 개정됐다. 계엄법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범위를 기존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해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경우'에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경우'로 확대했다.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지휘 감독할 권한도 5·18 이전에는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했는데 전국 계엄령이 아니어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도 시위 규제 장

소 '도로 기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도로 기타 육의장소'로 확대해 옥내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열리는 시위를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전두환의 신군부가 5·18직후 제·개정된 법률은 이밖에도 전투경찰대설치법 등 다양한 공통점은 처벌을 강화해 사회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5·18을 겪으면서 후시라도 자라날지 모를 민주화운동을 싹부터 자르려는 의도에서 만든 법률이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다니 충격적이다. 국가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경험했다. 전두환의 흔적을 말끔하게 지웠더라면 애초부터 윤석열은 풍상적인 비상계엄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폭력적 법률이 무엇인지 전수조사해 삭제하거나 수정하길 바란다.

無等鼓

선거철,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는 이사가 잦다. 전통적으로 선거 캠프로 활용하는 여의도 건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각 당 후보들이 '이사 전쟁'을 치러야 한다. 선거 캠프를 새로 치러거나 낙마한 뒤 캠프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이사가 빈번하다. 도로변 주차장이 금지된 것은 건물 입구에는 사무용품 쌓아둔 채 화물차를 기다리는 경우도 잦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캠프는 인력도 많고 사무용품도 다양해 이삿짐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최근 경

이삿짐은 어수선훈 보인다. 관계자들도 거의 볼 수 없고 이삿짐센터 직원들만 분주하게 움직인다. 느낀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삿짐도 초라하게 쌓여있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선거 이후에는 패배한 정당 사무실에서 내놓은 책상과 의자의 숫자를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고 어수선훈다. 보고있으면 "저 많은 수의 의자 만큼 일자리 잃은 사람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의자'에는 권력의 의미가 담겨있다. 고대에는 대성당이라는 의미가 있었고 '의자'를 뜻하는 '체어맨'이란 단어에도 의자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 심지어 은행도 의자를 마친 더불어민주당과 막바지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당락에 따라 사무실 짐을 처분하거나 살림을 늘리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삿짐을 보면 '어느 캠프가 방을 뺐는 지'도 알 수 있다.

제미 있는 것은 여의도 이삿짐에는 '표정'이 있다는 것이다. 정당 경선에 승리하거나 당선훈 국회나 대통령실 등지로 이사를 하기 위해 짐을 빼는 경우는 왠지 모르게 활기가 느껴진다. 반대로 낙마한 캠프

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영어 '뱅크(Bank)'가 공원에 놓인 '벤치(Bench)'와 어원이 같다는 것이다. 과거 신전 앞마당 벽에 고정된 탁자와 의자가 있었고 이 곳 의자에 앉아 돈을 빌려주고 받았던 "의자를 뺐다"는 말에는 해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 여의도 사무실 이사 풍경은 일종의 권력 이동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자를 빼는 주체'가 국민이라는 것이다.

/오광록 서울취재본부 부장 kroh@

기 고

아이들의 참여에서 세상의 변화 시작됩니다



송소희  
굿네이버스 전남북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단원

"조그마한 게 뭘 알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있을만하면 한 번씩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동의 권리가 과거에 비해 많이 증진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소외되곤 합니다.

저는 지난 2024년,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Good motion)에서 교육문화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모든 아동에게는 '아동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활동을 통해 아동들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직접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주체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저의 일상에는 다양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 저는 친구들과 함께 등교를 위해 우리가 이용하는 버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정류소 표지판이 없는 버스정류장을 다들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를 해결해주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고 흔히 겪는 불편일 뿐이라 여겨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아동권리에 대해 배우고 나서 지역사회에서 겪는 불편에 대해 더 많은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니 이러한 불편이 나와 내 친구들과만의 문제가 아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표지판이 없으니까 버스가 어디서 멈출지 알 수가 없어", "정류소에 차량이 주차해 있을 때도 있고, 특히 아이들은 작으니까 주차된 차량이 있으면 보이지도 않아." 이전에는 알고도 넘길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이 많은 친구들과 의견을 모으자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건이 되고, 의회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제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들의 제안은 화순군 의회에서 검토 중이며 2025년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상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은 물론 이번 활동을 통해 아동인 제 목소리를 지역 사회 어른들에게 전달했다는 점이 제게는 가장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의견이 바로 수렴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권리를 행사한다면 더디더라도 나로부터 변화되는 화순군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저를 부듯하게 합니다.

올해에도 저는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활동을 이어가며 저와 친구들이 겪는 지역사회의 불편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 목소리를 내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훗날 제가 어른이 되면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던 분들처럼 아동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경청하며 아동들이 마음껏 꿈꾸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아동들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들의 시선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